

Country Profile

뉴질랜드

2006년 3월 10일

배 희 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hybae@kiep.go.kr]

주요 이슈

- 2005년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
- 2006년에도 성장률 둔화세 지속 전망

차 례

I. 일반개황	3
II. 주요 경제지표	4
1. 최근 경제동향	4
2. 향후 경제전망	4
3. 대외경제관계	5
가. 품목별 수출입	5
나. 지역별·국가별 수출입	5
다. 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6
III. 경제현안	7
1. 뉴질랜드 경제개황	7
2. 최근 경제현황	8
3. 향후 경제전망	13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15
1. 교역관계	15
2. 투자관계	16
3. 양국간 협력관계	17

I. 일반개황

■ 자연 · 지리

- 국토면적: 270,534km²
- 인 구: 4,098,900 (2005년 6월말 뉴질랜드 통계청 추정)
- 기 후: 해양성 기후 (온대기후)
- 시 간 대: GMT + 12h (하절기 서머타임 실시)

■ 정치 · 행정

- 공식국명: 뉴질랜드 (New Zealand)
- 수 도: 웰링턴 (Wellington)
-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영국식 의원내각제)
- 국가수반: Queen Elizabeth II
 - 총독: Dame Silvia Cartwright (5년 임기, 2001년 4월 취임)
- 의회형태: 단원제, 비례대표제 (3년 임기, 총 120석 - 지역 69, 비례 51)
- 총 리: Helen Clark (노동당, 의회 의석에 의거 총독이 임명)
- 주요정당: 노동당(50석), 국민당(48석), 뉴질랜드 제1당(7석) 등

■ 사회 · 문화

- 인 종: 유럽계(70%), 마오리(15%), 아시아계(6%), 폴리네시아인(6%) 등
- 언 어: 영어, 마오리어
- 종 교: 성공회, 기독교, 천주교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3월
 -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개설('71.6),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개설('71.7)
- 주요협정: 어업협정('78), 이중과세방지협정('81), 항공협정('93), 형사 사법공조협정(2000), 범죄인인도조약(2002)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구 분	단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G D P	십억 달러	51.5	59.6	79.1	97.7	107.8
실질 GDP 성장률	%	2.7	4.3	3.9	4.3	2.2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	%	2.6	2.7	1.8	2.3	3.2
수 출	십억 달러	13.9	14.5	16.8	20.5	21.7
수 입	십억 달러	12.4	14.4	17.3	21.9	25.0
경상수지	십억 달러	-1.3	-2.2	-3.4	-6.2	-9.0
총 외채	십억 달러	32.2	32.6	38.1	48.0	57.7
환 율 (연평균)	NZ\$/US\$	2.38	2.16	1.72	1.51	1.42

주: 2005년도는 EIU 추정치임.

자료: EIU, *Country Report*, January & February 2006.

2. 향후 경제전망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실질 GDP 성장률	%	2.2	2.0	2.7
실업률(연 평균)	%	3.8	4.0	4.1
소비자물가상승률 (연 평균)	%	3.2	2.6	2.4
은행간단기이자율	%	11.1	11.0	10.4
재정수지(GDP 대비)	%	4.9	3.8	3.5
경상수지(GDP 대비)	%	-8.0	-7.4	-6.7
환 율(연 평균)	NZ\$/US\$	1.42	1.50	1.57

자료: EIU, *Country Report*, February 2006.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백만 US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2004	2005	품 목	2004	2005
낙농제품	4,970	5,158	수송기계/부품	5,439	5,408
육류/가공품	4,576	4,656	일반기계/장비	4,785	5,055
임산물	2,101	1,914	원유/석유제품	3,552	4,393
일반기계/장비	1,603	1,683	전자기계/장비	3,251	3,289
수산물	1,390	1,167	섬유/의류	1,630	1,677
알루미늄/제품	1,130	1,132	플라스틱/제품	1,322	1,400
전자기계/장비	1,061	1,085	철/철강제품	1,199	1,294
철/철강제품	1,026	1,010	광학/의료/계측	995	1,230
카세인	720	704	의약품	1,076	1,104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Overseas Merchandise Trade*, December 2005.

나.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US달러)

수 출			수 입		
국 가	2004	2005	국 가	2004	2005
호 주	6,400	6,593	호 주	7,812	7,684
미 국	4,436	4,373	일 본	3,895	4,082
일 본	3,443	3,261	미 국	3,916	4,065
중 국	1,745	1,565	중 국	3,376	4,034
영 국	1,456	1,432	독 일	1,817	1,804
한 국(6위)	1,165	1,082	싱가포르	973	1,232
독 일	727	789	영 국	1,172	1,192
대 만	704	773	한 국(8위)	993	1,024
홍 콩	560	525	프랑스	1,038	1,005
캐나다	521	524	태국	662	952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Overseas Merchandise Trade*, December 2005.

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입·출 동향

- UNCTAD Inward FDI Performance Index ranking(2004년): 74위
- UNCTAD Outward FDI Performance Index ranking(2004년): 43위

(단위: 백만 US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FDI Inward	Flow	-	775	738	2,445	2,441
	Stock	28,070	-	-	35,550	49,922
FDI Outward	Flow	-	-1,144	185	299	839
	Stock	6,065	-	-	9,059	9,256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Ⅲ. 경제현안

1. 뉴질랜드 경제개황

■ 뉴질랜드의 경제발전

-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50년 OECD 회원국내 3위에서 2000년 20위로 떨어졌음.
- 그 이유를 뉴질랜드 내부에서는 정책의 실패에서 찾는 반면, 외부에서는 뉴질랜드 경제의 규모와 외부와 지리적으로 격리된 경제 환경을 지목하고 있음.
- 1934년 이후 10년간은 GDP증가율이 80년대 동아시아와 비견될 만한 연간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도 20여 년간 4%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했음.
- 그러나 경제호황은 1966년 양모가격의 폭락과 함께 끝났고, 2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10년 주기의 불황을 경험하였음.

■ 뉴질랜드 경제의 장점

-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 낙농, 목축, 와인 등 식품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한 원동력이며,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점이 되고 있음.

■ 뉴질랜드 경제의 단점

- 작은 내수시장: 뉴질랜드의 인구는 약 4백만 명에 불과하여 내수 규모가 작음.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이 세계시장 경쟁에 뛰어들기에 앞서 규모의 경제 등을 구축하기 곤란함.
- 격리된 경제 환경: 지리적으로 뉴질랜드는 다른 여타 국가들과 떨어져 있어 이는 국제 교역에 있어서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으로 작용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뉴질랜드 시장의 생산자를 보호하는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함.
- 수출 의존적 경제성장: 소규모 개방경제인 관계로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부침이 심함.

■ 뉴질랜드 경제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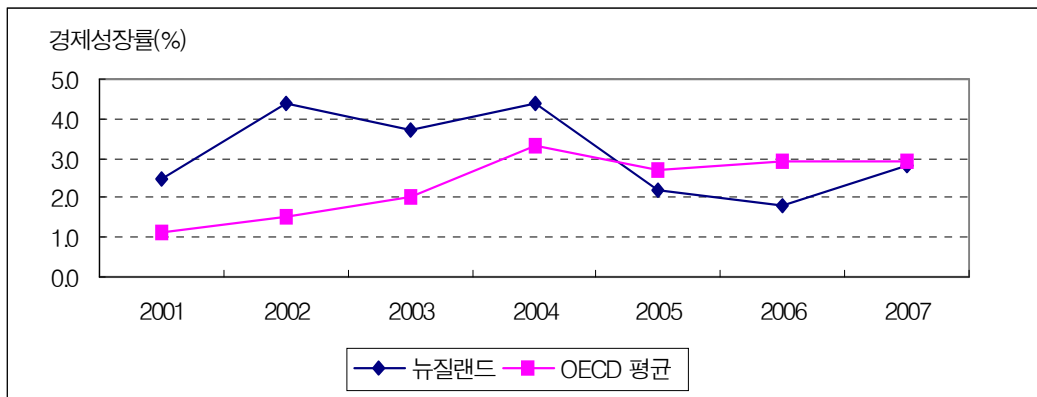
-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2004년 GDP의 66.8%)하였고, 농림수산업의 비중(2004년 GDP의 6.9%)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GDP의 22.3%)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온화한 기후 등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오래 전부터 농업, 특히 목축업이 발달했고, 농업제품 및 원예작물이 전통적으로 경제 및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1990년대 이후 유럽 등지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했음.
- 이와 같이 잘 발달한 농업(목축업)에 비해 제조업은 낙농제품 및 식품가공업을 제외하고는 일부 단순 조립생산에 불과하여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
- 제조업 중에서는 국내자원의 가공(식품, 임업 등) 및 부품 수입에 의한 조립생산이 발달되어 있음.

2. 최근 경제현황

가. 경제성장률 둔화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4%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뉴질랜드는 2005년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1년 이래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던 뉴질랜드의 실질GDP증가율은 2005년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를 밑돌 것으로 보이며, 2006년과 2007년에도 평균치를 밑돌아 각각 1.8%와 2.8%를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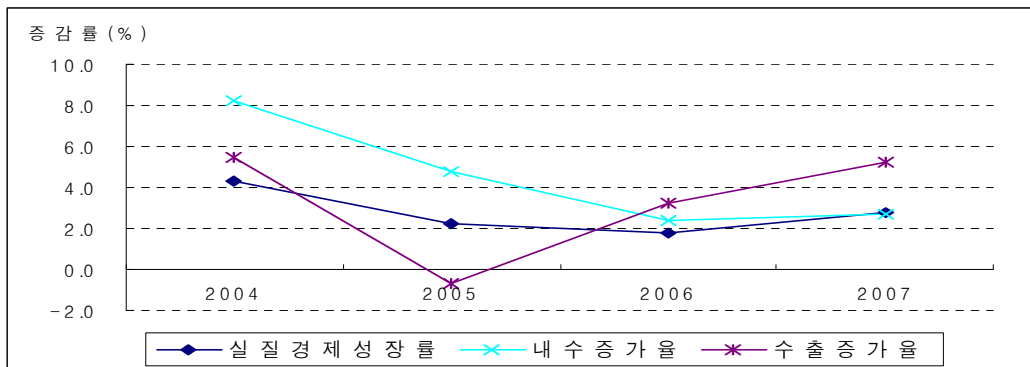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December 2005), EIU, *Country Report*, February 2006.

- 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4년의 8.2%에서 2005년 4.8%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출 증가율 역시 2004년의 5.5%에서 2005년 -0.7%를 기록, 급격한 둔화세를 시현하였음.(그림 2. 참고)

<뉴질랜드의 내수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EIU, *Country Report*, February 2006.

나. 경제성장률 둔화 원인

-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뉴질랜드의 둔화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그 동안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경기 활성화 붐이 꺼지고, 대미달러화 환율 하락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주택투자가 축소되는 한편 수입수요는 늘고 수출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 주택경기 냉각에 따른 민간소비와 주택투자 증가율 감소

○ 지난 몇 년간 뉴질랜드의 주택가격은 자국민과 외국인 투자자 등의 주택 수요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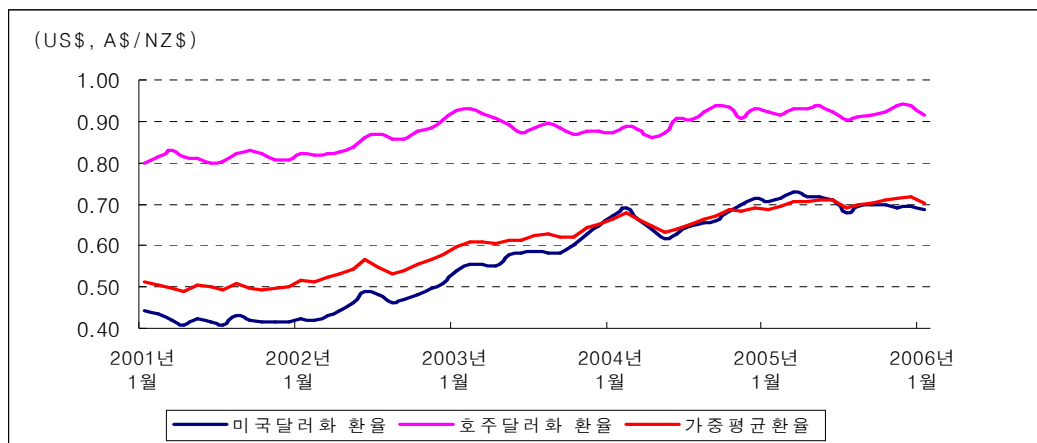
- 2005년 11월 평균 주택가격은 2004년 11월에 비해 15.4% 증가했음.

-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자국민들이 주택가격의 지속 상승을 기대하여 연간소득의 12%에 가까운 마이너스 저축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주택담보 가계대출 분야에서의 은행간 치열한 경쟁의 결과,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이자율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도 가계소비 지속에 한 몫을 차지했음.
-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높은 이자율, 순이민 증가율 감소에 따라 신규주택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민간소비 감소에 따라 비건설부문의 투자도 감소추세에 있음.
- 특히, 주택건설투자의 경우, 2005년 2/4분기 1.4% 감소에 이어 3/4분기에도 5.6%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비주거용 빌딩부문 건설도 7.4% 감소해 3/4분기 건설부문의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 4.6%를 기록하였음.

- 환율상승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 심화

-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졌고, 최대 수출시장인 호주 달러화에 비해서도 상대적 강세를 시현하였음.
- 뉴질랜드 달러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2005년 3월 0.74US\$/NZ\$를 기록해 지난 22년간 최고수준을 돌파하였음.

<뉴질랜드 달러화의 환율 변동 추이>



자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 이에 따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GDP의 8% 수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음.
- 여기에 건조한 기후 지속으로 인한 주요 수출품-낙농제품-의 생산 감소도 전체 수출 감소에 한 몫을 차지하였음.
- 환율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수입 수요의 증가는 GDP 증가율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재정정책

- 당초 뉴질랜드의 2005/06년도 예산안은 재평가와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것을 제외한 운영 흑자(이하 조정 운영흑자)를 GDP의 4.3%인 67억 NZ\$로 전망했으나, 선거 전 경제/재정 증보(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Update, 8월 중순)에서 GDP의 4.7%인 73억 NZ\$로 변경했음.
- 그러나 2005년 12월 반기 경제/재정 증보(Half-year Economic and Fiscal Update)에서는 선거 공약사항과 경기하락 전망을 반영하여 2005/06년도 조정 운영흑자를 GDP의 3.7%인 59억 NZ\$로, 2006/07년도 조정 운영흑자를 GDP의 3.6%인 59억 NZ\$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음.
- 선거 공약에는 향후 3년간 추가로 17억 NZ\$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Working for Families” Package에 대한 추가 기금조성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면제 공약도 막대한 재정소요를 유발할 전망이다.
- 뉴질랜드 재무부는 향후 조정 운영흑자가 2006/07년도에는 GDP의 3.6%로, 2007/08년도는 2.4%로, 2008/09년도는 1.9%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뉴질랜드의 2005/06년도 예산의 핵심은 ‘조세감면’으로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상향조정과 소위 ‘Kiwi Saver’로 알려진 새로운 직장저축제도의(new workplace savings scheme) 도입임.
- 다만,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상향조정은 2008년 4월에 시작되며, 매 3년마다 6%씩 조정될 예정으로 2008년 4월의 경우 정부는 최고 세율(39%) 적용대상을 현행 60,001 NZ\$에서 63,673 NZ\$로 조정할 계획임.

<소득수준별 소득세율>

소득수준(NZ\$)	현행 세율(%)
60,000 달러 초과	39
38,000~60,000 달러	33
9,500~38,000 달러	21
9,500 달러 미만	15

자료: The Treasury of New Zealand

- 새로운 직장저축제도는 2007년 4월부터 도입되며, 18~65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신규 취업자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나 탈퇴권한을 가짐.
- 임금의 최소 4%가 사전 공제되어 적립될 것이며, 계좌개설 및 관리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것임.
- 뉴질랜드 정부는 신규 가입시 1인당 1,000 NZ\$를 보조하고, 그 이후 최대 5,000 NZ\$까지 매년 1,000 NZ\$를 보조할 계획임.
- 적립된 자금은 근로자들의 최초 주택구입시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 직장저축제도의 시행은 OECD 국가 중 저축률이 저조한 뉴질랜드의 저축률을 당장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 경제성장률이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법인세의 2% 상당에 해당하는 감가상각기준 변경과 부가세율(보혐료 등) 조정을 고려중이며, 호주의 법인세율(33%)과 자국의 법인세율(30%)간의 격차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임.
- 정부는 이로 인한 감세효과가 2009년까지 14억 NZ\$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07년 4월부터 적용되는 탄소세(연간 7.2억 NZ\$)의 도입으로 감세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임.
- 2005/06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미루어 볼 때, 뉴질랜드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신규 노후연금기금 조성 및 자본투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정부는 재정흑자를 유지할 전망이다.
- 향후 4년간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지출은 106억 NZ\$가량 증가할 전망이며, 보건 분야에 41억 NZ\$(재정지출의 20% 상당 차지, 의료서비스 비용의 3/4를 정부가 보조), 교육 분야에

14억 NZ\$(최근 주당 20시간 무료교육 수혜 범위를 5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서 3~4세 아동으로 확대)를 사용할 계획임.

- 또한 치안·국방 부문과 2004/05년도 예산부터 새로이 도입된 “Working for Families”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출도 확대할 예정임.

3. 향후 경제전망

■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

- 2006년 뉴질랜드 경제는 주택경기 활황이 끝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소비를 지탱해 왔던 가계의 소비·부채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관련 지출과 민간부문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지난 2년간 지속된 일자리창출 둔화, 순이민 증가율 감소, 고유가 및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5년에 이어 2%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 전반적인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및 효율화, 경영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장률 둔화세 지속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률 완화

- 뉴질랜드의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작년 3/4분기 지난 5년간 최고치인 3.4%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물가상승률은 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화를 위해 2004년 이후 지난 2년간 기준 이자율을 2.25% 인상했으며, 지난 10월과 12월 각각 0.25%씩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 이는 물가상승 억제 외에도 자산가격 상승, 고유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임금상승 추세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음.
- 2006년에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정책, 내수침체, 주택건설경기 둔화,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3.0% 수준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환율 하락 및 국제수지 개선

- 2005년 연평균 1.42NZ\$/US\$ 수준을 기록하였던 뉴질랜드 달러화는 2006년과 2007년에는 대미이자율 격차의 축소와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각각 1.50과 1.57NZ\$/US\$ 수준으로 평가 절하될 전망이다.
- 높은 수입수요와 강한 뉴질랜드 달러화(최대 수출시장인 호주달러화에 비해서 강세)의 영향으로 2005년 무역수지 적자는 33억 달러에 이르렀음.
- 또한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와 맞물려 국제수지 적자는 GDP의 8.4%에 이르는 등 1980년대 후반 이래 최고수준을 보였음.
- 그러나 2006년에는 내수경기 침체로 수입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며 뉴질랜드 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해서 수출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회복될 전망이다.
- 소득수지는 높은 이자율과 외국인회사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나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GDP의 8%와 7.3%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재정 흑자 감소

- 2005/06년에는 재정 운영흑자가 2004/05년도의 74억 NZ\$에 비해 조금 줄어든 59억 NZ\$(GDP의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 뉴질랜드 재무부에 따르면, 재정 운영흑자의 상당부분은 새로운 노후연금기금의 조성(2004/05 21억 NZ\$, 2005/06 23억 NZ\$)과 보건·교육·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임.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역관계

■ 교역비중

- 2005년 기준 뉴질랜드는 한국의 48번째 수출 상대국 및 32번째 수입 상대국
- 2005년 기준 한국은 뉴질랜드의 6번째 수출 상대국 및 8번째 수입 상대국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수 출	286	272	322	433	620	670	44
수 입	702	743	753	708	879	891	71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주요 교역품목 (2005년, MTI 6단위 기준)

- 주요 수입품: 원목, 쇠고기, 치즈, 분유, 펄프, 키위, 양가죽, 녹용, 알루미늄 피 등
- 주요 수출품: 휴대전화기, 건설 중장비, 어류, 수산가공품, 세단형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인쇄용지, 도금강판, 지프형 승용차 등

<한국의 對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2005	2006. 1		2005	2006. 1
총 계	5,046	256	총 계	8,184	738
석유화학제품	517	44	광물성 연료	5,634	485
직물	486	36	금속광물	524	68
철강제품	444	26	임산물	357	31
가정용 전자제품	271	19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418	31
전자부품	228	16	정밀화학제품	151	16
비철금속제품	127	15	섬유사	151	14
광물성 연료	1,613	14	석유화학제품	127	13
정밀화학제품	148	11	철강제품	64	11
산업용 전자제품	169	10	농산물	114	9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2. 투자관계

■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45번째 투자 대상국 ('05년 말 투자기준 총 209건, 120.5백만\$)

- 한솔포럼, 대성그룹, 대주그룹, (주)오뚜기와 같은 기업들이 목재, 식품가공업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음.

<한국기업의 對뉴질랜드 연도별 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99	'00	'01	'02	'03	'04	'05	누계
신고 기준	건수	1	25	67	59	32	14	9	238
	금액	0.4	5.3	14.8	28.5	33.4	24.3	24.2	227
투자 기준	건수	1	24	55	51	31	12	10	209
	금액	0.4	4.3	7.9	14.0	33.9	16.7	24.8	120.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가 우리나라 FDI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

- 주요 투자기업은 도·소매(유통),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로 뉴질랜드 교육문화원 (New Zealand Centre for Culture and Education), (주)제스프리 인터내셔널, 리치먼 코리아, (주)벨렉스코 코리아 등이 있음.

<뉴질랜드 기업의 對한국 연도별 투자 추이>

(단위 : 천 달러, 신고기준)

	'99	'00	'01	'02	'03	'04	'05	누계
건수	6	0	5	5	2	9	2	47
금액	3,289	0	614	402	86	16,752	133	35,871

자료: 산업자원부.

3. 양국간 협력관계

■ 한상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 확대

- 뉴질랜드 내 한국 이민은 대략 4만 명 정도로 뉴질랜드 국민의 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도처에 형성된 한인사회들 중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율임.
- 2005년 현재 뉴질랜드 교육시장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체 5위(매년 11만 명가량) 그리고 이민자 비율은 전체 7위를 나타내고 있음.
- 현재까지는 자동차와 휴대폰 등 일부 품목만이 인지도와 양적인 측면에서 뉴질랜드 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뉴질랜드에 활발히 진출해 있는 우리 교민을 원동력으로 뉴질랜드로의 상품 수출을 강화해 만성적인 무역역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상품 수출 외에도 현지 직접투자 진출이 필요한 바, 향후 對뉴질랜드 투자 유망업종은 원목 개발, 합판, 펄프, 종이, 판지 등 임산자원 가공부문과 수산 자원, 피혁, 육류, 낙농 및 식품 가공 분야이며, 그 밖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및 장비 제조 등 소규모 기술집약적인 산업부문도 진출 유망 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 농업부문

- 농업부문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농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협상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 하에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사례와 농업현황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
- 뉴질랜드는 과거 철저한 농업 보호주의정책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오늘날 가장 선진화된 농업정책을 지닌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현재 호주와 함께 세계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농업 발전은 국제적인 교역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로, 농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질랜드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 FTA 협상

- 뉴질랜드는 한국의 FTA 협상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가 생산하는 농·축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작은 경제규모, 한국 수출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에 기인하는 바가 크게 작용함.
- 현재 뉴질랜드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개시된 한-미, 한-캐나다 FTA의 결과는 뉴질랜드의 대 한국 주요 수출품인 소고기와 유제품 수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의 FTA는 ‘한국에서 뉴질랜드 수출품의 시장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한-미, 한-캐나다 FTA협상의 후폭풍으로부터 자국의 수출시장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여겨짐.
- 뉴질랜드의 작은 시장규모는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제한하는 요인이거나 이는 양국 간의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또한 한-미, 한-캐나다 FTA협상에서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뉴질랜드와의 FTA는 한국 시장에서의 수출국가들 간의 경쟁을 확대시킴으로써 무역전환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현재 정부는 여러 국가·지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각각의 FTA가 야기하는 구조조정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협상만으로도 정부의 협상능력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특히 한-미 FTA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노력이 한-미 FTA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뉴질랜드와의 FTA를 추진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즉각적인 뉴질랜드와의 FTA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미, 한-캐나다 FTA 협상 이후의 한국의 FTA 전략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양국간 유연한 정치·경제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